

2015년 제1차 자살예방 TF회의 논의에 따른 경과 보고

I 개최 개요

- 일 시: 2015. 3. 31.(화) 16:00~17:00
- 장 소: 성동구청 5층 세미나실
- 참석자: 총 17명
 - TF-Team 팀장 보건소장, 질병예방과장
 - 팀원 교육기획팀장 외 15명
- 회의내용: 2014년 자살예방사업 평가 및 2015년도 협력방안 논의

II 논의 내용 및 진행 경과

1. 자살예방지킴이 교육 관련

- ① 노노케어 활동가가 자살예방지킴이 교육을 받으면 좋을 것 같다.
- ② 지킴이 교육을 복지관련 공무원 뿐 아니라 전 직원이 교육을 받도록 하면 좋겠다.

▶ 진행경과

- 보건소에서 2015년 427명의 자살예방지킴이를 신규양성 하였으며, 총 1,935명의 자살예방지킴이를 관리하고 있음
- 보건소 전 직원 및 구청, 동 주민센터의 신규임용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살예방지킴이 교육 실시함

2. 준사례관리자(마음이음 친구) 활동 관련

- ① 노노케어 활동자의 나이가 많은데 마음이음친구(말 벗 서비스)가 효과가 있는지 의문임

▶ 진행경과

-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노노케어와 보건소의 마음이음친구는 혼란이 있으나 다른 성격임
- 2015년 서울시 자살예방사업 매뉴얼에 따라 기존의 마음이음 친구는 준사례관리자로 활동하고 있으며, 여성인력개발센터의 회원들이 준사례관리자로 활동함으로써 활동가의 평균연령이 낮아졌으며, 서울시 주최 및 보건소 자체적으로 심화교육을 통하여 역량강화에 노력하고 있음

3. 송정동, 용답동의 접근성 관련

- ① 송정동과 용답동은 거리가 멀어서 접근성이 떨어지고 서비스가 안 되는 것 같다.
같은 성동구 내에서 지리적 위치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.

▶ 진행경과

- 센터의 사례관리 담당자들이 동 별로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음
- 용답동 자살취약지역(시범관리동)으로 9월부터 우울 및 자살고위험군 대상자에게 우리 동네 건강사랑방 프로그램(마음이음 손뜨개)을 운영하고 있음